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벽에 바림 레지던시 작가들이 그려넣은 학원가 그림지도.

문화의 힘, 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다

동부경찰서 일대 '문화로드' 만들어 나가는 상인공동체 '조우'

광주 동부경찰서 부근 가게 앞에 주차 금지를 알리는 색다른 입간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가게의 특징을 살린 예쁜 글씨의 주차 금지 간판은 소박하지만 거리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는 도로폭(10m)이 좁아 차량이 1대라도 주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불법적인 주차 문제는 광주 지역 어디나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학원가 상인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끌어들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낸 문화 예술의 모습, 문화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이다.

지난해 3월 학원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결성한 상인공동체 '조우'(회장 김현우)는 주차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잡았다. '조우'에는 KEB외환은행 광주점 앞 일방로 입구부터 동부경찰서 앞 약 120m 구간에 자리잡은 상가, 갤러리, 독서실, 학원 등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우' 구성원들은 강제적으로 주차를 금지시키기 보다는 문화적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흔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놓아두는 라바콘(빨간 원뿔 모양 차량통제용 구조물)이나 타이어, 큰 돌 등은 거리 풍경을 해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립아

시아문화전당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까닭에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만큼 문화도시 분위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논의 끝에 입간판을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불쌍사나운 타이어를 거리에서 치우고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 POP업체와 연계해 예쁜 입간판을 제작·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문화로드 사업'으로 이름을 붙이고 총장동주민센터 협조로 사업비(900만원)를 확보했다.

입간판 제작은 '조우' 회원 '예쁜 글씨 피오피스타'에서 맡았다. 주차금지 협조 내용과 함께 상가명과 간단한 설명을 써놓아 다소 소소한 홍보 효과도 노렸다.

가로 40cm·세로 1m 입간판에는 '문화로드 주차금지 협조바랍니다'가 써져 있다. 전일빌딩 인근 우영카페라부터 동부경찰서 앞 커피전문점 '더치더치'까지 20여개가 놓여있다. 손으로 쓴 예쁜 글씨체와 갈색 바탕이 어우러진 똑같은 크기 입간판은 질서정연하게 거리 한부분을 차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히 '주차금지' 네글자만 적어놓아 운전자 반발심을 자극하기 보다는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예쁜 글씨 몇자로 운전자 인식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조우' 회원들은 입간판을 설치한 뒤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없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부가적으로 담배꽂초 등 쓰레기 불법투기도 많이 사라졌다. 조그만 입간판이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KEB 외환은행 광주점 협조로 전일빌딩 벽에 그림지도(가로 약 2.5m·세로 70cm 크기)를 그려넣었다. 그림지도는 바림 레지던시 작가들이 맡았다. '우영카페라'부터 커피전문점 '더치더치'까지 도로를 중심으로 양 옆에 위치한 상가들을 그렸다. 꽃가게는 분홍색 꽃으로 표현했고 치킨집은 닭다리를 그려넣은 점이 재미있다. 서점건물은 책, 게스트하우스에는 침대를 등장시키는 등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보더라도 한눈에 어떤 건물인지 알 수 있도록 묘사했다.

또 거리 곳곳에 LED조명을 설치해 삭막한 밤 풍경을 바꿨다.

김현우 회장은 "입간판을 설치한 뒤로 거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깨끗해졌다"며 "앞으로 문화전당측과 협의해 거리 이름을 '아문당길'로 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지난 1월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학원가 일대 상인공동체 '조우'가 각 상가 앞에 설치한 주차금지 입간판.

광주 무각사 재활용 장터 '보물섬' 5일 개장

먹거리 장터도...매주 토요일 열려

광주 무각사 산하 봉사단체 (사)자비나눔이 주관하는 재활용장터 '보물섬'이 5일 오전 9시 무각사 문화관 앞 마당에서 올해 첫 개장을 한다.

'보물섬'은 첫 개장 이후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릴 계획으로 먹거리 장터와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이 행사는 지난 2009년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의 제안으로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광주지역 4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시민들이 직접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장터다.

장터 참여자들이 낸 기부금과 장터국수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전액기부, 아동들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아나바다' 운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현장에서 접수하거나 전화(062-385-0108)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각사에서 열리는 재활용장터 '보물섬' 참가자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느긋한 오전 즐기는 '11시 음악회'

광주시향 1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느긋한 오전에 즐길 수 있는 '11시 음악회'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2016년 첫 '11시 음악회'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의 지휘봉은 신사내티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조정현씨가 잡는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으로 문을 열며 슈만의 교향곡 1번 '봄'을 연주한다.

또 첼리스트 심준호씨가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서울예고, 예선 폴크랑 국립음대를 거쳐 노르웨이 국립음악원에서 수학중이며 지난해에는 베토벤 전곡 연주회를 진행,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앙상블 '오푸스' 멤버로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첼리스트 심준호

문화전당 시즌프로그램 '아시아윈도우 탐험대' 모집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시즌프로그램 '아시아윈도우'는 아시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예술적 주제들을 이슈화하고 공연, 전시, 심포지엄 등을 통해 입체적인 형태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윈도우'를 가깝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젊은 기획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윈도우 탐험대'를 진행한다.

만 34세 이하의 기획자 및 창작자, 동시대 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 시민이면 누구

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자들에게 광주 숙박, 아트상품 등을 제공한다. 탐험대는 직접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3월 '아시아윈도우' 작품은 요우미 '월경과 혼재'다. 신청마감은 오는 3일까지며 행사는 11~13일까지 열린다.

이후 아시아윈도우의 또 다른 프로그램 라야마틴 '인도큐멘타'(4월 29일~5월 1일)도 탐험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062-601-4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소설집

부족함이 가득하다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에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갇힌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루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나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리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